

‘12년 만의 월드컵 16강’...꿈·희망 선물한 한국 축구 ‘금의환향’

“새로운 시작, 더 앞으로 나아가는 팀 될 것”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 “국민 응원 덕분에”...조규성 “선수라면 당연히 세계적 무대 꿈꿔”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축구대표팀이 환하게 웃으며 귀국했다.

‘캡틴’ 손흥민(토트넘) 등 23명의 대표선수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두 항공편으로 나눠서 7일 오후 4시40분께 한국에 도착했다.

중동 클럽 소속인 김승규(알사바브), 정우영(알사드)과 독일 리그에서 뛰는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은 귀국하지 않고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벤투호는 손흥민의 안와 골절, 황희찬(울버햄프턴)의 햄스트링 부상 등으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16강 진출의 목표를 달성했다.

대국전사들은 강팀들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축구로 12년 만이자 사상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을 달성해 찬사를 들었다.

벤투 감독은 “공항에 나와서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다. 4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대표팀과 함께했는데, 팬들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16강을 이룰 수 있었다. 선수단을 대표해 감

사하다”고 말했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으로부터 배운 것을 이어받아 대표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새 사령탑을 선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손흥민은 “여러분 덕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벤투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준 조규성(전북)은 세계적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소망을 숨기지 않았다.

조규성은 귀국 인터뷰에서 유럽 진출과 관련 “딱히 들은 건 없다”면서도 “선수라면 당연히 세계적 무대로 나가 세계적 선수들과 부딪혀 보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꿈이었다. (지금도) 꿈꾸고 있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 축구를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올려놓은 결승포의 주인공 황희찬은 “이제 막 월드컵이 끝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과를 즐기고 싶다”며 “국가대표팀에서뿐만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발전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대신 선발’ 하무스, 대회 1호 해트트릭

스위스戰 6대1 대승 이끌어 호날두, 14년만에 교체 출전

포르투갈의 신예 공격수 곤살루 하무스(21·벤피카)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대회 1호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됐다.

하무스는 7일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 16강전에 선발로 출전, 혼자 3골을 몰아치며 포르투갈의 6-1 대승을 이끌었다.

포르투갈 리그 벤피카에서 뛰는 하무스는 2001년생으로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는 벤치 멤버로 활약했다.

한국과 3차전에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페르난두 산투스 포르투갈 감독은 이날 스위스와 16강전에 하무스를 선발로 내보냈다.

그것도 팀의 간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를 대신해서였다.

산투스 감독은 이날 호날두를 벤치에 앉혀줬다가 팀이 5-1로 크게 앞선 후반 29분에 기용했다.

점수가 4-0이 된 이후 관중석에서는 ‘호날두’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였다.

호날두가 월드컵이나 유럽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에서 선발로 나오지 않은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포르투갈의 신예 공격수 곤살루 하무스가 7일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스위스와의 16강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손가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날두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어찌 됐든 산투스 감독의 하무스 기용은 대성공이었다.

하무스는 전반 17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왼발 터닝슛으로 선제골을 뽑았고, 2-0이던 후반 6분에는 디오구 달로트와 함께 페널티를 갖다 대며

3-0을 만들었다.

또 4-1로 앞선 후반 22분에는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달려 나온 상대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오른발 슛으로 이번 대회 1호 해트트릭을 만들어 냈다.

하무스는 4-0을 만드는 후반 10분 파울로 게헤이루의 득점을 어시스트해

이번 시즌 벤피카에서 14골을 터뜨린 하무스는 이번 월드컵 개막 직전 나이저리아와 평가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다. 11월17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은 하무스는 A매치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게 됐다.

/연합뉴스

모로코 돌풍, 포르투갈도 넘어설까

아랍 국가 최초 8강 진출

아랍 국가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8강에 오른 모로코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모로코는 7일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스페인과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아시아의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메나’(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국가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것은 올해 모로코가 처음이다.

중동에서는 1994년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까지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고, 아프리카에서는 1990년 카메룬, 2002년 세네갈, 2010년 가나가 8강에 진출한 바 있지만 이들 3개국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아랍국가가 아니다.

모로코는 특히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자책골로 1골을 내준 것이 유일한 실점일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다.

대회 최소 실점 국가인 모로코의 8강 상대는 포르투갈이다.

모로코와 가까운 유럽 국가들인 스페인, 포르투갈이 연달아 모로코의 상대로 나서는 셈이다.

포르투갈은 이번 대회에서 12골을 터뜨려 잉글랜드와 함께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모로코와 포르투갈의 8강전은 ‘참과 방패’의 대결로 손색 없다.

모로코와 포르투갈 경기 승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경기 승자와 준결승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부누가 7일 열린 카타르월드컵 16강전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슛을 막아내고 있다.

/AP·연합뉴스

CMYK



지난 6일 열린 ‘2022 광주시 장애인체육 시상식’에서 강기정 시장과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022 광주시장애인체육 시상식 성료

전문·생활체육·자원봉사 등 6개 부문 40명 시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22 광주시 장애인체육 시상식’ 행사를 열어 6개 부문 40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한해를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광주시장애인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및 종목별 가맹단체장,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체육인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올 한해 동안 광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체육진흥상 전문체육 부문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한국신기록 3개를 수립하며 3관왕에 오른 김지혜 선수 등 10명이 수상했다.

체육진흥상 생활체육부문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에 모범이 되고 있는 문아현(남구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등 7명이 받았다.

자원봉사부문에는 이동수 재운운동 발달센터장 등 6명이, 우수 모범직원상에는 최정균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등 6명이, 공로상에는 김시환 천지장애인화원 회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올 한해 각종 국내·외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특히 올해 10월에 개최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원정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 순위 6위를 달성해 광주시의 위상을 한껏 높여준 광주 선수단 및 지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장애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광주시가 장애인들에게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2022년도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 참가 지도자들이 지난 1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워크숍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소통·화합’ 선진 훈련기법 공유의 장

광주시체육회, 25개 종목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 눈길

광주시체육회가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지도 능력 강화와 소속감 고취 및 선진 훈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지도자 워크숍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2일 고흥에서 체육지도자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도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육상 등 25개 종목 27명의 전문체육지도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 간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고 우수지도자 발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지도자들은 또 개인별 발표를 통해

선수 육성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공유했고, 각자의 훈련방식에 대한 사례 소개, 선진 훈련기법 정보공유를 중점으로 다뤘다.

스포츠과학연구원은 지도자들에게 스포츠데이팅 최신 방법, 스포츠마사지 등 스포츠과학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김광아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체육지도자의 역량이 곧 광주체육 역량”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지도자간 공유한 선진화된 훈련방법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중기자

17일 KBO리그 40주년 기념 배틀그라운드 이벤트

KBO 선수·야구팬 戰友로 뒀다

KBO리그 선수와 야구팬이 온라인에서 서로의 등을 맞댄 전우가 돼 한판 대결에 나선다.

KBO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잠실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KBO리그 40주년을 기념해 배틀그라운드 이벤트 ‘PBG: PLAY! BATTLEGROUND’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크래프톤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KBO리그 선수와 팬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야구장이 아닌 전장에서 펼쳐질 이번 맞대결은 구단별 경쟁 구도를 통해 재미를 더한다.

구단별 선수 1-2명, 야구팬 1-2명, 배틀그라운드 E 스포츠 선수 1명이 각각

팀을 이뤄 팀당 4명씩 총 10개 팀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대결을 벌인다.

총 4개 매치를 열어 총점 순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KBO리그에서는 전의산(SSG), 최원태(키움), 이우찬, 고우석(이상 LG), 강백호(kt), 이창진, 임기영(이상 KIA), 박대운(NC), 원태인(삼성), 김원중(롯데), 김민혁(두산), 이진영(한화)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우승 상금 1천500만 원은 우승팀 명의의 퓨처스리그와 저년차 연봉 선수 지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다.

선수와 함께 팀을 구성해 이벤트에 참가할 야구팬은 오는 14일까지 별도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관람권 예매는 9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된다.

/연합뉴스